

- ◆ 행사 :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인사말)
- ◆ 일시 : 2021. 7. 27.(화) 14:00
- ◆ 장소 : 정부세종청사 523호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교육감님들과 교자협 위원님들 뵙고  
교육제 현안을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님,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님,  
이영기, 하봉운, 허승대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위촉되신 허승대 위원님,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협의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실무협의회 위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반 이상을,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유행 상황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격수업과 방역, 학교안전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30년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017년 8월, 제1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여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 개정에 대한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 하나하나가  
교육자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